



우리에게 보내진 이주민, 그들에게 보내는 주의 청년들

팬데믹으로 5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 '2023 제18회 선교한국대회'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1,400여 참가자의 헌신·결단과 함께 막을 내렸다. 1988년 제1회 대회 이후 2년마다 개최된 청년 선교 동원대회인 선교한국대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선교한국대회는 주관단체 없이 선교한국의 11개 학생선교단체가 함께 섬긴 첫 대회이자, 지리적으로 남부지방에서 열린 첫 대회였다. 또 대회 기간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라 10일 오전 일정을 비대면으로 잠시 전환하는 등 조직위원회 측의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대회이기도 했다.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읍 선교사는 올해 대회와 관련해 "이번에 모인 하나님 선교에 목마른 1,403명이 결실한다면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의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선교사는 대회 소감에 대해 "5년 만에 열린 대회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다"며 "아침과 저녁 성경강해와 예

배 중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 한동대 채플실이 딱 차서 복도에 종이를 깔고 앉고, 뒤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강의실로 보내서 온라인 송출을 했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속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한국 본연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는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청년들이 모였다"라며 "대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다. 지방에, 그것도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드려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반응했고 모든 순간에 진심이었다. 밤이면 삼삼오오 모여 토론하고 나누는 모습이 펼쳐졌고 밤 12시까지 자유키도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읍 선교사는 이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8명의 주 강사와 낮 동안 60여 명의 주제강사의 섬김이 빛났다"라며 "아침에는 구약의 언약 강해를 통해서 선교의 맥을 잡고, 저녁에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계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낮에는 요일별로 전방

개척선교, 이주민선교, 총체적 선교를 따라 다양한 분야의 선택식 주제강사들이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했는데, 모두 무보수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선교한국대회는 '미셔널 세바시'(Ted talking)와 미셔널 Q&A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 오후 선택식 강의와 미셔널 멘토링으로 심화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교지도구와 전시 자료, 문화체험 등이 있는 '다이나믹 배움터', 다양한 선교정보를 접하는 46개 선교단체 박람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 선포를 도전하는 GMT(Global Mission Trends), 타문화 선교사들이 전하는 '아름다운땅 끝소식', 사물놀이·힙합·아카펠라·연극 등 버스킹과 도서 박람회, 타문화 포토존, 해외참가자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 중 특별히 이주민선교 선택식 강의는 △외국인근로자 선교사역(하광락 선교사/포항시외국인센터) △이주

배경 자녀 사역(김태형 선교사/OM다민족선교센터) △불교권 이주민선교(윤윤경 선교사/인천태국인교회) △국내 난민 선교(김종일 선교사/열무김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선교적 시야를 넓혀 이주민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선교한국대회에서 다뤄진 이주민선교 강의 내용을 9월호에 모아보았다.

2023 선교한국대회 24·8·10면

안산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소식 6·7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이해 12면

나는 선교하러 우리 교회로 간다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대표
미션파트너스 동원 선교사

글

유근영 선교사

왜 이주민 사역인가?

우리나라는 불과 140년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미전도 종족이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 없고,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도 없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급속하게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경험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전 세계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간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난민이 되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 반대로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30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 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온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주민을 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태도로 이주민 사역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외국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긍정적인 시선도 있겠지만, 제노포비아와 우월의식, 두려움과 무관심 등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할 때가 많았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에게 다가가 이들의 국적, 종교, 성향에 상관없

이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복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때로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환대의 마음으로 물심양면 베풀고 난 뒤, 정작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이 정도 잘 해줬으면 교회에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도 문제가 된다. 우리는 환대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진 일 '환대와 환영'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환대와 환영을 검색해 보면, 먼저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 나오고, 환영은 "오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음"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이 땅에 오는 사람, 즉 이주민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환대와 환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환영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환영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와 생각하는 기준으로 환대와 환영을 베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충분히 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환대와 환영이 어려운 이유이다. 상대방의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환대와 환영을 실천하기 이전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 세계적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가 고안한 'E 척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사이의 문화적 거리를 말한다. E 척도는 △E0(기독교 가정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E1(단지 교회 밖에 있는 상태.



▲ 환대와 환영의 자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대상) △E2(유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전도) △E3(완전히 다른 타 문화권 전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당연히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문턱 밖에 있는 E0-E1 전도이다. 하지만 E2-E3처럼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대위임령이 성취될 수 있으므로 E2-E3 사역은 가장 필수적인 전도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서구기독교에서 볼 때 E2-E3 국가였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E0-E1 전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가 되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E2-E3의 타문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결국 선교는 E2-E3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들 스스로 E0-E1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선교사가 할 일은 문화적 거리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해도 E2-E3 사역을 하려면 지리적 거리를 넘어야 했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수많은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살아가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찾아옴으로써 지리적 거리를 넘지 않아도 E2-E3의 전도대상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선교는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 우리가 환영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이웃으로 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다면?(부산대청교회 유학생 사역 사례를 중심으로, 2009년~)

물론 이주민이 가까이 있다고 이주

민 선교사역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선교사역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필자가 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10년 넘게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주로 이주근로자거나 유학생, 혹은 다문화가정일 것이다. 이주민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외국인이 몇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은 일단 '한 명이라도 모이면 뭐라도 시작해 보자'이다. 국내 이주민 사역은 해외 선교사역과 마찬가지로 지름길도 없고 쉬운 길도 없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거치는 '개척 - 부모 - 협력자 - 참여자' 단계를 겪게 된다.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대상도 모두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된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주민을 환영한다고 해도 실수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이주민들을 대하면 그들도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주민을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이주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들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은 부모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그렇게 몇 년간 섬김을 받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다.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져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문화가 다른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스스로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더 나아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교회 이주민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이주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때 겪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책

이주민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에는 정주와 비정주가 있다. 정주는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계속 살아가는 경우고, 비정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주민로자는 일반적으로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간다. 유학생 역시 공부를 마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 이주민 사역 중 대부분은 비정주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이 이주민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할 때 아마도 필자가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이주민들을 섬기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이주민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는다. 그리고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여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한다. 그런데 그쯤 되면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필자는 특별히 유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짧게는 반년부터 6년까지 다양하게 한국에 거주하다가



▲ 주일예배를 드리는 모습

돌아가는 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필자가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 첫해였을 것이다. 중국 청도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 30여 명이 동시에 부산에 왔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1년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와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르자 30여 명의 아이들은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는 그들이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비정주 이주민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간다. 온 힘을 다해서 환영하고 사랑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내 중국 심방팀을 꾸려서 심방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그들이 가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심방을 갔을 때 그들과 다시 만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 이래로 사역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이 만일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이주민에게 심방 갈 계획을 미리 세우라 제안하고 싶다. 한국에서 환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그 가족들까지 만나고 돌아올 때면 이미 여러분을 보는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국으로 돌아간 이주민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때도 우리를 방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한국에 오면 친정집에 오듯이 교회나 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 돌아간 지 10년 가까이 된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렇듯 심방은 국내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필자 역시 네팔과 중국으로 심방을 가 본 경험이 있다. 감사한 것은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도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는 중국에 가면 만나야 할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 나를 환영해 줄 친구들도 많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진행되면 현지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도 가능해진다. 이는 곧 국내 이주민 사역이 국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장기적인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회 이주민 사역 10년 차 이후 나타나는 일들(협력자 단계를 넘어 참여자 단계로 가는 길)

교회 내 이주민 사역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된다. 부모 단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협력자나 참여자 단계로 넘어갈 때 특히 쉽지 않다. 사실 교회 내부 사역으로 이주민 사역은 안정적인 편이다. 봉사자, 재정, 사역자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내부 사역으로써 이주민 사역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사정상 이주민 사역자가 이주민 사역만 전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역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큰 단점이 된다.

반대로 이주민 사역만 전문으로 하는 사역단체는 온전히 집중해서 사역이 가능하다. 국내 선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면 많은 장점이 따른다. 사역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심방 사역을 할 수 있고, 돌아간 이주민과도 연결되어 그들의 지인이 한국에 올 때 우리 사역지로 연결해 주는 일들도 일어난다. 반면 재정 문제와 같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회 내부 사역인 동시에 선교단체처럼 사역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혹은, 시기를 정해서 사역을 분립할 것을 고려하여 시작하는 방식도 있다.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 분립하여 내보내는 방식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OM다민족선교센터의 이주민 다음세대 제자 사역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 사회는 어느새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였으나, 아직 타문화-타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와 문화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열방의 많은 민족을 이 한국 땅에 옮기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시다. 다민족 이주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각 민족(또는 각 언어권)에서 다음세대의 영적 리더를 세워 복음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전략에 순종하는 자들이 OM다민족선교센터(선교사 양성학교)에 모이고 있다.

이때 'TCK'란 'Third Culture Kids'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한다. 성장기 동안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을 부르는 말로 CCK(Cross Culture Kids)라고도 부른다. TCK는 부모 나라의 문화(제1문화)에나 해외 문화(제2문화)에나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양쪽 문화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제3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뜻한다. 우리는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들의 자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MK·PK를 비롯하여 교회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신앙적·언어·정서적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 TCK 사역의 필요성

언어교육의 한계

현재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이다. 학교마다 여러 형태의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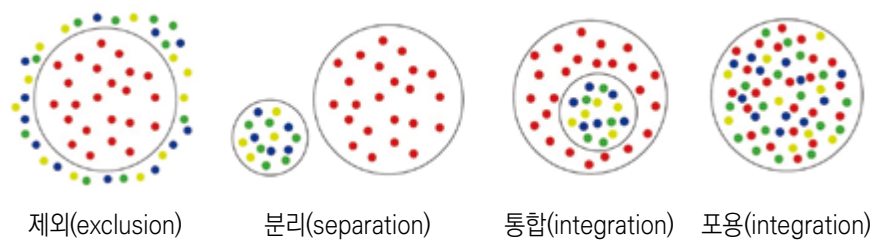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하루 1~2교시의 형식적 수업으로는 수업 참여와 학습 내용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각 학교·학급마다 동일 언어권의 이주 학생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국에 온 지 4, 5년이 지나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지 못하는 이주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진학과 진로의 한계

학교에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은 각 가정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학교 외 교육(학원·과외)이나 각 학생의 개인적 노력 없이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실력까지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진학과 진로에서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대학마다 입학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대학교 강의 따라가기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이주 학생들도 많은데, 고졸의 학력과 2, 3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직장 과 업종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화 적응의 어려움

대다수의 이주 학생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 몸은 한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자민족 언어와 문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또래 문화, 한국 직장 문화, 한국인들의 정서와 습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한국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서적 불안

이주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녀의 학습과 정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해 이주 학생들은 학교·가정·사회에서 필요한 보살핌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다. 수업 시간과 또래 아이들 간의 사소통의 어려움, 떠나온 고국과 친척·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낯선 환경에서 겪는 소외감과 위축된 감정들을 위로받지 못하고 무조건 적응을 강요받는다.

이주민들이 겪는 전반적 어려움과 다음세대의 역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제외·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합의 단계까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포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통합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이나 기존 구성원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오로지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만 변화하고 수용하라는 요구가 주어진다. 반면 포용 단계에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소속감과 역할 분배, 수용과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 사회의 정책과 태도 변화만을 기대하는 소극적 자세를 뛰어넘어 적극적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소년·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문화적 수용력,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거쳐 빠른 문화 적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TCK들은 언어 감각, 타문화 감수성, 포용성이 뛰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수용력을 높여 포용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2. 선교사 양성학교의 기본 방향

선교사 양성학교의 목적과 효율성

이주민 청소년·청년들을 세워서 자민족을 섬기는 선교사,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체가 되어 리더로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훈련을 통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이주민으로서) 같은 입장, 같은 연령대의 사역자가 세워지면 자민족 또는 동일 언어권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또는 제자운동을 일으킬 때 폭발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적 한국어 교육

이주 학생들이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나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적 한국어 교육을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영성 훈련

- 1. 말씀 훈련
 - 읽기
 - 듣기
 - 연구
 - 암송
 - 묵상
- 2. 기도 훈련
- 3.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 4. 전도 훈련
- 5. 제자 양육 훈련

관계 훈련

- 1. 신뢰 공동체 훈련
 - 서클
- 2. IFS(자아 통합)
- 3. RC(갈등 조정)
- 4. 부모 교육
- 5. 문화 이해 훈련

한국어 훈련

- 1. 한국어 통합 교육
 - 읽기·듣기·쓰기·말하기 통합 교육
- 2. 핀란드 외국어 교육법
- 3. 수준별 학습
- 4. 실제적 한국어
- 5. 두뇌 과학에 기반하여 현지인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어 교육

실시한다. 한국어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까지 가능하도록 회화 중심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되, 문법·읽기·듣기·쓰기 영역 또한 집중 훈련하여 통합적 한국어 교육을 지향한다.

진학·진로의 구체적 비전과 방향 제시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여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학습 능력과 열의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을 돕고(예: TOPIK 시험 준비), 한국과 이주민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제시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대학 입학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예: 호남신학대학). 또한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직업 선택을 위한 도움을 준다.

문화 적응의 통로가 되어줄 공동체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한국인 사역자들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가 자연스럽게 몸과 생각에 스며들게 된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 치유와 회복

△서클 △IFS(자아 통합) △RC(갈등 조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끈다. 서클이란 환영과 축하, 신뢰와 경청, 존중과 돌봄 등의 훈련을 통해 갈등 해결을 넘어서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조정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3. 선교사 양성학교의 훈련 내용

영성 훈련

-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 이웃과의 관계: 교제, 봉사
- 선교적 차원: 증거
-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증거의 다섯 기둥으로 영성 훈련을 진행한다.

관계 훈련

- 소그룹을 통해 대부모, 포레 멘토들과의 신뢰와 사랑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한다. 기쁨, 사랑, 신뢰의 공동체를 맛보고 경험하여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자로 세워간다(예: 교사 2, 3명과 학생 3, 4명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가정과 삶을 오픈하며 심리적 지지와 신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는 밀착 관계의 형성으로써 자원봉사의 개념과는 다르게 더욱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

- 부모 교육: 부모는 아이들의 뿌리다. 청소년·청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가정이 함께 가야만 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 문화 이해 훈련: 통합을 넘어선 포용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 문화에 무조건 따르라는 태도는 지양한다. 이주 학생의 문화, 가치관을 가져와서 함께 섞이자는 포용의 태도가 중요하다.

한국어 훈련

- 핀란드 외국어 교육법의 기본 원리와 두뇌 과학에 기반하여 현지인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 각 학생마다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그룹 수업을 실시한다.

-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한국어를 교육한다.

4. 선교사 양성학교의 비전

제자로 세우기

제자로 세워진 청소년·청년들이 다음 학기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고, 기존 교사는 서브의 역할로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모국어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제자운동의 시작과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사역자로 세우기

영성 훈련, 관계 훈련을 통해 사역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한다. 선교사 양성학교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회 내에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역량을 키워준다.

전문가·진행자로 세우기

서클, IFS, RC,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훈련한다. 신뢰공동체 형성의 전문가, 서클 전문가, 갈등 조정의 전문가, 부모-자녀 간 관계 회복 전문가로 세워질 것이다. 또한 학교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예: 현재 지역 초등학교 학급에 들어가서 서클 프로그램 진행에 동참).

한국과 이주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우기

OM다민족선교센터가 위치한 광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 타지역으로 팀을 이루어 파송할 계획이다. 폭발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이주민 사회를 복음화하고 포용의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들로 세워질 것이다.

글 김태형(OM다민족선교센터 대표)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7개국 27명의 이주민과 함께한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8월 6일 주일 안산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렸다. 유아세례와 성인세례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센터장)와 국가별 예배담당자 및 각 지역 센터장(고원규, 김연경, 마눔, 박창홍, 베르헤, 송순동, 아미, 은, 이정빈, 조나단, 전홍렬)이 집례하였다. 이날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는 한국, 몽골,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7개국에서 온 이주민 27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이주민은 유아 3명, 아동 4명, 성인 20명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연합세례식을 열고 이주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노규석牧사는 "세례식에서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아버지인 전홍렬 선교사가 아들 전원 형제에

게 직접 세례를 주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남양주에서 사역하는 박창홍 선교사가 인도 아하마드 형제에게 세례를 줄 때는 아하마드 형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했다. 김포 M센터의 캄보디아 리나리 자매와 맹워타 형제가 세례받는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이어 안산에서는 3명의 몽골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며 기쁨을 전달해 주었다. 평택 M센터에서는 10여 명의 세례자가 나와 춤을 추며 축하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현장의 소식을 전했다. 노목사는 이어서 "앞으로 다문화 차세대, 이주민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며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기사 제공 온누리M센터



▼ 세례식 풍경들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 해양선원 선교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락: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4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성' 내용을 요약하였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글로벌디아스포라포럼(Global Diaspora Forum)에서 발제된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의 논의 영역은 △국제학생 사역 △BAM(Business as Mission) △디아스포라 상황의 아이들 △테크놀로지와 디아스포라 △국제교회를 통한 대위임령 완수의 잠재력 △난민에 대한 선교적 접근 △디아스포라 상황 속 지역교회의 역할 △해양선원 선교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해양선원 선교를 중심으로 요약·발췌하고, 나머지 영역은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한다.

해양선원 선교(Diaspora Missions on the High Seas)

현재 바다 위에 떠 있는 상선은 약 5만 대 정도로 공식적인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만 170여 국이며 해양선원의 수는 대략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선원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는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있다.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필리핀 해양선원의 수는 약 34만 명이며, 이는 전체 숫자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다른 디아스포라들과는 달리 정착지가 따로 없고 바다가 그들의 정착지이기 때문에 제한된 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의사소통을 하며 지낸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해양선원들은 스스로 '물 위의 감옥'에 산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선원은 6개월~1년을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한두 달의 휴가를 받지만, 그 기간도 또 다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선원 생활이 35년 정도라 했을 때, 거의 30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

해양선원을 복음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나타난 단체는 1846년에 창립된 'The Seamen's Christian Friend Society(SCFS)'이다. SCFS는 주로 예배 인도, 자가 성경공부 재료 보급, 영적인 음악·영화·기독교서적 보급 등으로 해양선원을 섬긴다. 또한 선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해양선원 대



상의 사역단체는 이외에도 'Sailor Society', 'Korean International Maritime Mission', 'Port Ministry International' 등이 있다.

해양선원에게 필요한 사역 중 중요하게 꼽히는 사역은 바로 선박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선 나라는 필리핀이다. 필리핀 해외근로자(OFW)의 7%에 달하는 사람들이 진심한 복음주의자들로 추산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필리핀 해양선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엠선교회와 필리핀국제네트워크(FIN)는 필리핀의 크리스천 해양선원들을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서 배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이끌었고, 그 후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선적의 배 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선원 선교를 위해 사역기관이 연대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선원 사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
- ② 기도, 지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선상 교회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
- ③ 항구에서 해양선원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선원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 ④ 선상 교회 지도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서로 연대하도록 하는 일
- ⑤ 선원들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교육하는 일
- ⑥ 특히 제자양육, 리더십 훈련, 목회적·선교적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선상의 성경학교(Bible School At Sea)'를 진행하는 일
- ⑦ 해양선원 사역에 관하여 해양 또는 육지에서 전임 사역자를 만드는 일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www.diasporanews.kr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안산 온누리M센터 세례 대상자 간증문

살롬! 저는 태국에서 온 Phanthira Bua Khun이며 Joy라고 불립니다. 제가 자란 곳은 태국 남부 송클라(Songkhla)주이고, 태어난 곳은 방콕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제 가족은 친척들과 한집에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할머니가 키우신 손주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손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남들이 채워주는 줄 알고 버릇없이 굴며 남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존심 강한 제게 함부로 야단치지도 못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람캄행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Nam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Nam은 진실하고 좋은 친구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독교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도 등한시하고 그토록 의지하던 할머니와 다른 가족도 만나지 않고 오직 남자친구에게만 열중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등지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술에 빠져 살았고 아들 둘이 태어난 후로도 친구들과 다니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의 매일 다투면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정말 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파로 느껴졌습니다. 끝내 내가 왜 이런 인생

을 살게 되었는지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떠나 본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제게 가족들은 한국에 가서 일해보라고 권유하였고, 그렇게 저는 2017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중부지방의 어느 수박 과수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박에 주사하는 화학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하는 것이 매우 고단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자 수박 재배를 중단하여 안산의 닭고기 가공 공장으로 일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람캄행대학교에 다닐 시절 만났던 기독교인 친구 Nam이 한국에 들어와 어느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Nam은 먼저 제게 연락하여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Nam은 제게 마늘 목사님과 위야다 사모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Nam과 위야다 사모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모든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산 온누리M센터 태국어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과수원으로 가서 2년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와중에도 화학 물질 과민반응은 더 심해졌습니다. Nam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염려해 주면서 과수원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자

리를 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곤 저를 안산 온누리M센터 위야다 사모님께 데려가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위야다 사모님과 Nam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나를 때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야다 사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저는 안산 온누리M센터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늘 목사님의 책에서 묵기도 하고, 목사님 가정과 요리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마친 토요일에는 태국 공동체와 모여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등 함께 기도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듬해 6월 어느 주일, 마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설교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 문을 활짝 열었고, 고민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구원받는다

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인생에 놓여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가지씩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면서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불만과 원망 그리고 쓴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남편이나 가족들,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 진리(Dharma)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글 Phanthira Bua Khun
(태국 이주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국내 불교권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안



前 태국 선교사
現 인천태국인교회 담임

글 윤윤경 선교사

불교의 이해

인도가 불교의 근원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인도의 아소카 황제가 즉위한 시점부터라 할 수 있다. 아소카 황제는 BC 268년에서 232년까지 인도를 다스리면서 불교 선교사를 파키스탄·이란 등 중앙아시아로 파송하였고, 그로 인해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또한 대승불교도 이 시점에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대부분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로 발견되고 있다.

아소카 황제는 중국으로도 불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불교는 중국의 도교 및 조상숭배 사상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소승불교가 탄생되었다. 소승불교는 최초로 부처의 가르침을 AD 30년에 글로 남겼다. 불교의 첫 번째 절은 BC 228년 미얀마에서 지어졌다. 스리랑카 불교는 태국·캄보디아·라오스로 전해지다 마지막으로 네팔에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그로 인해 부탄·티베트·몽골과 그 위로는 시베리아의 부랴트공화국까지 불교가 전해졌다.

전통적으로 불교권은 소승불교권(스리랑카·미얀마·캄보디아·태국·라오스·베트남 등), 대승불교권(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신비불교권(부탄·몽골·티베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오늘

비교 대상	소승불교	대승불교
현세	정신적인 현실주의 고수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라고 말함
절대자	물질세계 이면에 절대적 존재를 부인	초월적 절대자를 믿음
싯다르타	하나의 순수한 인간, 선생으로 봄	절대적 존재의 현현으로 봄
해탈	오직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다	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개인의 공덕	개인의 공덕은 개인의 것	개인의 공덕은 타에 전가될 수 있는 것
목표	직접 개인의 열반 상태에 들어가는 것	모든 존재를 해탈시키는 중재적 존재
열반	윤회의 세계로부터 탈출이 목표	자신을 찾는 무아의 경지로 생각
태도	자연세계를 포함한 이성주의적인 태도	초이성적 태도, 즉 초자연적 경험을 동경

〈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

날에는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적불교, 계몽불교, 민중불교의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1)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 ① 무신론의 종교이다.
- ② 깨달음의 종교이다.
- 고타마 싯다르타 "나는 깨달은 자다."
- ③ 철두철미한 자력 종교이다.
- 고타마 싯다르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 ④ 인간학의 종교이다.
- ⑤ 무 존재론의 종교이다.
- 생사윤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이는 곧 열반이며, 열반은 무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2) 불교와 기독교의 두 가지 차이

- ① 내세론: 불교의 극락/기독교의 천국
- 고타마 싯다르타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가르치면서 사후세계를 부인했다. 소승불교에는 극락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승불교에는 신적인 요소인 유신론이 유입되었다.

②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 태국어로 메따까루나(고대인도어)는 '자비롭다'라는 뜻이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앞질러서 불행 대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랑'을 '욕망'이라고 표현한다. 사랑을 집착하는 마음,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자 악한 것으로 여긴다.
- 고타마 싯다르타가 가르치는 소승불교는 출가 중심의 불교이다. 그래서 자비 사상이 없다.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자비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3) 불교권 선교의 걸림돌

- ① 소승불교에서 불교와 문화는 한 몸처럼 혼합되어 분리가 안 된다.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난다.
- ② 전통불교가 아니라 민속불교(Folk Buddhism)
- ③ 소승불교는 기독교 교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복음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대승불교보다 소승불교가 기독교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④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 신과 하나님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

⑤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선입견

⑥ 불교의 절충주의적 성격

⑦ 불교도의 일치단결

⑧ 신학적 걸림돌

- 소승불교 신도들은 요 3:16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 불교는 '모든 종교는 똑같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 예화를 들자면, 오랫동안 사귀어 온 태국인 친구가 찾아와서 "나도 너처럼 이제 크리스천이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러면서 온갖 부적과 상징물로 뒤덮인 목걸이를 꺼내 보이며 "봐, 내가 여기에 십자가도 넣었어. 이제 내 수호신 중 하나인 거야"라고 말할 것이다. 실상은 그들이 믿는 것에 기독교를 그저 융화시켰을 뿐이며, 이는 불교도가 얼마나 쉽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화이다.

국내 불교권 선교전략

불교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장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애초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 불교도 친구는 여러 분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신이 욕망이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윤회의 바퀴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에 갇혀 탄생과 죽음, 환생을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교도들은 행위를 중시하며 종교는 자신이 하는 행위와 의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부터 의견 충돌이 생긴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를 윤회로 생각한다. 그런데 불교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영원한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탄생과 노화, 죽음을 반복하면서 평생 윤회에 갇혀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겉으로는 말하지는 않고 단지 "상관없다"고 얘기하거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친다"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실은 "나는 내 종교가 있고, 당신 종교는 나와 상관없으며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뜻이다. 불교도들은 인내심이 매우 강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리고는 "그렇죠. 예수님은 선하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대화는 결국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창조에서 심판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보도록 하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를 두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사이좋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와 그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땅으로 던지셨습

니다. 그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람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고통도 이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자 돕는 자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돕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질투했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시신을 동굴 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기쁨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들의 죄인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권세를 누리게 되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보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세대를 비롯하여 모든 장소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 차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행실과 악한 생실을 따져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도 가족의 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주민 선교를 위한 Tip

- ① 친구가 되어라
- ② 스스로 말씀을 통해 견고해져라
- ③ 가능한 외국어를 익혀라
- ④ 언성을 높인다거나 화를 내지 마라

▼ 인천태국인교회의 이주민 사역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새로운 선교전략 패러다임(New Paradigm Mission)

KPM 국내이주민 선교사
포항 말씀교회 담임



하광락 선교사

코로나19는 지난 3년간 세계 곳곳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를 움푹달랠 수 없게 꽂꽂 동여맸다.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 기관단체 그리고 귀국한 선교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 현 상황을 현상적인 시각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적인 관점으로 보니 길이 열렸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가든지 보내든지"의 전투적인 선교 동원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선교전략 패러다임은 바로 국내 이주민 선교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2030년 500만 외국인 입국 시대를 앞둔 시점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주민은 우리 시대의 'New Paradigm Mission'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갔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형들 앞서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한다(창 45:5). 현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갔지만, 현상 아래 실제 속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숨 쉬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주민의 입국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6~27) 한국 땅을 밟는 이주민은 각자의 고귀한 입국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근로자로, 결혼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난민과 비즈니스로 말이다. 이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람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파송 선교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는 탈식민지, 탈근대화, 탈서구화를 거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세계선교의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 미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브라질의 열정이 달음질하지만 세계선교의 바통은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넘겨졌고, 그 선교의 핵은 한류 열풍으로 가득한 국내 이주민 선교로 방향을 바꿨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기가 어렵다. 최근 몇 년 사이 선교사 핍박과 추방으로 인한 비자발적 입국 선교사의 숫자가 급상승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적체(積滯)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평생 섬겨왔던 선교지에서 추방당하였으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오란 곳도 없다. 결국 제3국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해 재배치를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 비자발적 입국 선교사 중 상당수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서 국내 이주민 선교는 새로운 활력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탁월한 언어 능력과 문화충격 방지 시스템 등의 제반을 갖춘 뒤 국내로 새롭게 나아온 셈이다.

2023년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P)는 평촌 선언 결의문을 선포했다. 그 가운데 국내 이주민에 관련한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에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공화국 사역·문화 사역·생계와 체류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다른 종교 이주민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다문화 예배와 복음 증거를 통해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고, 이들을 자비량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3 평촌 선언은 코로나 이후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차세대 동원, 리더십 트랜지션, 자립교회 개척, 이주민 선교, 현지인 훈련과 파송 등의 현장 이슈 토론 및 성찰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국내 이주민 선교'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외 선교전략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국가별 핍박과 박해의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내 이주민 선교는 세계 선교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제 해외 선교와 국내 이주민 선교의 네트워크 사역 또한 중요 사역 중 하나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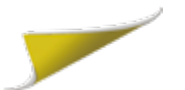
최근 한국교회는 '생선(생활 선교) 세미나'가 장안의 화제이다. 또한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는 불처럼 일어나는 'LAMS(Life As Mission School)'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날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전도와 선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활 다반사 선교가 진행되며, 선교의 영역 또한 국지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삶이 선교이고 일상이 선교인 셈이다. 지금까지 선교의 핵심은 예배로 국한되어 왔으나, 이제는 다중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이주민은 크게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탈북민, 미등록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배만을 위한 사역이 중심 사역이 될 때 국내 이주민 선교는 힘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주민 선교의 기초를 멀티사역(Multi Ministries)에 두기를 제안한다. 멀티사역은 교회 중심적이 아닌 이주민 중심적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자체를 선교로 보는 것이다. 근로자가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역시 선교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미등록자의 법적·행정적 지원과 권리보장 또한 선교로 인식한다.

다음은 말씀교회의 국내 이주민 멀티사역을 나열한 것이다. 열거된 사역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일반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① **예배 사역**(다국어 동시통역 예배)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싱할라어, 캄보디아어, 힌디어, 아랍어 등
- ② **국가별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다국어 찬양**
- ③ **훈련선교사 허입, 프로텐 선교사 파송, 팀 사역** - 프로텐 선교사(Proten missionary)는 전문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와 자비량 선교사(Tentmaker missionary)를 합성한 단어로 말씀교회에서 정립한 용어이다.
- ④ **한국어 교육 사역** -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영주권 국적 취득반, 장기체류 비자반(온라인/오프라인)
- ⑤ **의료 지원 사역** - 무료 진료, 수술, 진료 통역, 차량 지원, 산재(보상), 사망, 장례, 운구, 코로나(백신) 홍보 및 지원
- ⑥ **상담 및 인권 지원 사역** - 노동 상담(임금체불, 퇴직금, 사업장 변경, 분쟁조정, 민·형사건), 인권상담(세미나 개최), 미등록 체류자 관련 인권 지원 사역

- ⑦ **체류 지원 사역** - 출입국, 대사관(국내외) 관련(비자 획득, 변경, 연장, 재입국, 귀국, 초청, 구금 등)
- ⑧ **목장 지원 사역** - 문화 목장(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예품 만들기, 연극, 영화 등), 스포츠 목장(크리켓, 국가별 축구 팀 운영, 국제친선 축구대회 개최), 음악·악기 목장(오베이션, 베이스, 드럼, 카혼, 마텔, 피아노, 바이올린)
- ⑨ **심방 및 공출 사역** - 이주민 심방(이주근로자 숙소사 및 근로 현장, 외국인 교도소, 출입국 보호소, 경찰서 유치장 등 방문), 생활용품·식자재·방역용품 지원, 강제 추방자 집 정리, 본국 송부
- ⑩ **협의회 운영지원 및 언론 방송 사역** - 전국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운영(법안 상정 및 개정), 칼럼 방송 진행 및 기고 사역, 보도자료 배부, 유관기관 협의회(경찰, 출입국, 노동부, 법원, 국정원, 정부 기관, 기업, 지역사회), KWMA 대구·경북지역 사역(이주민 사역자 Healing camp)
- ⑪ **쉼터 사역** - 무료 숙식 제공, 외국인 노숙자 돌봄 사역, 복지지원 사역
- ⑫ **네트워크 사역** - 귀국자 현지 선교사 연계 및 현지교회 출석, 국내 이주민 사역 희망교회 컨설팅 및 네트워크, KPM 안식년 선교사 팀 사역 협력 및 국내 이주민 사역 연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14의 언약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나님은 이 나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새로운 선교의 패턴인 'New Paradigm Mission'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국내 이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국에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준비해 두셨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예비해 주신 것이다. 인종, 언어, 국가, 심지어 종교까지도 포용하여 이주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선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주역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임에 분명하다. 청년들이 국내 이주민들의 좋은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자매로 남기를 축원한다.



모세, 이주민 지도자로 부상하다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Dr. Tereso Casiño

글

모세는 갈대 사이에서 건져진 순간부터 이주민 지도자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애굽의 궁정에서 성장한 일, 히브리인들과 접촉한 사건, 미디안으로 달아나 목축민으로 지낸 시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경험 등을 통해 모세는 차차 리더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겪은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제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소명에서 비롯되었다.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대규모 이주민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성경 역사의 영웅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모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세의 소명적 삶이다. 바로의 딸에 의해 길러지면서 애굽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정으로 다시 돌려 보내셨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에서 가축을 돌보며 40년을 보내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모세는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려는 그의 소명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했지만, 바로와 다시 대면하기란 모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임무이다. 모세가 알던 바로는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바로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행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 2:23~25) 그리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노예 해방의 대표 자격에 대해 모세가 느낀 불확실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즉각적인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의문이었다(출 3:11). 40년 전 모세는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던 히브리 노예를 보호하려다가 자신의 생명과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한 적 있었다. 모세는 과연 40년 전의 그 사건을 쉽사리 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대표로 나설 수 있었을까? 어



쩌면 그는 겨우 안정을 찾은 현재의 삶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거나, 수많은 사람을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시기'이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80세였다. 오늘날로 보면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지낼 나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다. 모세는 늙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나이 시계를 재설정했다. 80세란 나이에 성경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용기 있는 자로서 이주민을 이끈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모세의 나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요소였다. 다섯 번째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원해 주신 것들이다.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 개인적 존재,

장로, 공동체, 지팡이, 대변인과 같은 여섯 가지 자원을 제공해 주셨다. 모세의 망설임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모세는 애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러한 표적을 받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인격적인 존재와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세를 도우시리란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이라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출 3:18).

www.diasporanews.kr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열무김치 네트워크 회장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교수



김종일 교수

예수와 유대 율법교사의 대화(누가 복음 10:25~37)

유대인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자, 예수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되물으신다. 이에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의 인용이라고 자신 있고도 의기양양하게 대답한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신 6:5),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레 19:18)"라는 것이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전 반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일편단심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부분이다. 또한 레위기 말씀은 십계명의 남은 후반부, 즉 피조물 사이의 계명을 요약한 부분이다.

당시 "이웃"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유대인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했다. 이러한 유대적 사고방식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에게 성령이 개입하신 사건, 또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조차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교회로 사역이 옮겨간 사건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행 11~13장).

따라서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이웃'에 대한 유대적 관점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향해서 그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삶에서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다(28절).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서 다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다(29절). 그 질문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당시 율법교사가 예수로부터 기대했던 답은 유대 문화권 안에서의 이웃 개념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웃의 진정한 개념을 일깨워 주셨다. 비유를 통해 유대 문화권 밖에 사는 사람도 언제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기에는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와 오늘날 우리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웃'의 의미를 정정해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율법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그가 과연 우리의 이웃인지 아닌지, 혹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인즉슨,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와 상관 없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칼뱅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말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대다수가 자기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 무가치하기 때문에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입장에 설 것을 강조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족인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차례로 피하여 지나간다(31~32절). 이 비유에서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유대 식의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역시 지나쳤으리라 유추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유대 사회 안에서 이웃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없는 유대인 동족을 보고도 피해 갔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아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에게 어찌면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자세하게 담겨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33절). 그는 자기 민족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본문은 말한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NIV는 "p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는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다("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또한, KJV에서는 "had compassion"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을 당한 자와 함께하고 그 것을 나눈다는 의미를 지닌다("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on him").

두 번째, "가까이 갔다"(34절). 위에서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같은 동족도 아닌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동족에게 가까이 가야만 했던 제사장, 레위인과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행동으로 다가간 사마리아인의 대조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삶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다.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34절). 당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위해 기꺼이 사용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도 만난 이를 처음 보았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33절).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34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도로처럼 평탄한 길도 아니고 험한 길이었을 텐데도, 사마리아인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기 짐승에 죽어가는 유대인을 태웠다. 그 말인즉슨, 여분의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걸어갔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는 자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신의 일정도 연기하고 시간을 내서 주막으로 유대인을 데려가 돌봐주었다. 다섯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였다(35절). 그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했다(35절).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이틀 치 봉급 정도(오늘날의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심지어 모자라면 갚겠다고까지 하면서 유대인을 도우려고 했다.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단지 가까이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웃과 형제(히브리어로 '아호')는 동의어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타국인, 이방인, 또는 객('자르', '노크리')은 유대 밖에 거주하는 비(非)유대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언약'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환대의 관례를 따랐다. 타국인과 객은 '이웃'과 관련한 율법에서 예외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서만 적용되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로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다(마 22:39; 막 12:31). 구약성경 속 바리새인들은 상인이나 일반 평민을 이웃에서 제외하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사랑과 이웃을 다시금 정의해 주셨다.

구약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분명한 유대인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율법 위반이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함께 거주하는 자도 아니고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데 연민(compassion)의 마음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비유를 드신 예수님의 관점이 드러나는데, 이웃을 향한 친절은 사랑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나타나면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는 관점이다. 결국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웃'의 정의는 율법교사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듯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36~37절).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모든 행동은 이웃의 개념 그 자체이며, 이러한 행동을 삶에서 보이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된다.



▲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1890)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현장연구의 필요성

디아스포라신문은 정기적으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연구보고서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본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본고는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선교전략 기반구축의 필요성' 내용을 이전 호에 이어서 수정·요약한 글이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과 더불어 이주근로자 문화가 유입되면서 자신들의 도덕성과 인간성과 종교성의 실체를 대내외적으로 실험하고 검증받게 되었다. 깊고 광범위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 내용들은 신학 전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850년 실천신학자 술라이에르마허의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된 신학은 데이비드 보쉬에 의해 '선교신학'으로 정의되고 명명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교회로 통하여 선교실천적으로, 지속적인

로, 그리고 명확하게 재현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의 기능과 역할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자주 교황과 황제라는 두 통치권 사이에서 존재하는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진 변증신학적인 발전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슈베르트 옥텐은 신학을 '인간실존에 경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증거를 전폭적이고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①주석신학을 포함하는 역사신학의 영역에서 인간실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의 신앙증거는 무엇인가? ②조직신학(교의학)을 인간실존에 결정적이게 만드는 기독교적 증거가 무엇인가? ③인간실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적 신앙의 증거가 오늘날에는 무엇이어서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그 답으로써 실천적인 선교신학의 학문성을 각각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은 하나님에서 출발하여 인간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을 상호연관 관계에서 풀어내

야 할 연구의 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실천적인 선교신학이 '하나님의 인식'을 현실적 인간실존에 직접 관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술라이에르마허는 이를 '신학의 왕관'으로 칭하기도 했으며, 마틴 켈러(Martin Kähler)는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하비 칸(Harvie M. Conn)이 신학에 대해 "선교적인 반성 바로 그 자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이다.

이처럼 신학의 학문적 특징들은 각각 역사, 철학적 사고, 현실적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의미는 일치의 목표를 지향한다. 더욱이 실천신학은 '행동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연구의 방법 면에서 집중·이해되는 경향으로 인해 목회의 경력 사항 정도로 여겨지는 오해가 자주 있어 왔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실천신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수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을 뿐 아니라 목회를 위한 응용, 기술 습득 정도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오류와 함께 정의·규명되기도 한 실천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찬반의 견해를 나

누던 것이 신학의 연구방법으로 발전되다시피 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실천신학이 하나의 행동과학으로써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실존에 강조점을 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이탈되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는 역사를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반영·분석하는 역사신학 또는 철학적인 사고를 활용하게 되는 조직신학이 연구방법론 때문에 신학에서 이탈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선교신학은 '현장' 중심의 신학연구 방법을 기피해서는 안 되며, 현장연구를 학문의 방법과 내용에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명확히 이해·고백케하는 그 학문의 목적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수도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마음태국인교회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1324-35

T 010-9874-4430

H www.thairuamjai.net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수요셀모임 수요일 오후 9: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9: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5

T 02-6181-6154

H www.yfgcinternational.com

영어예배 주일 오전 9:00 / 11:00

영어청소년 주일 오전 11:00

영어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4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00

몽골예배 주일 오후 1:30

일본예배 주일 오후 1:0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이주민 예배

서울네이션스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위다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경상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전라권역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 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구독 신청 QR

MMTS

MIGRANTS MISSION TRAINING SCHOOL



이주민선교훈련학교 25기(MMTS) 클래스에 초대합니다

2023년 9월 18일(월) ~ 12월 18일(월요일)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10:00 ZOOM 온라인 수업

주최/후원 : WITHEE, ICDM, GDN, NEXTMOVE, KWMA

25기 커리큘럼

구분	강 의		강의주제
상황과 이해	1주	9/18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2주	9/25	한국 이주민 선교의 역사와 현황
	3주	10/2	성경 속의 이주민
	4주	10/9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 그 활용방안
준비와 적용	5주	10/16	비교종교와 타문화
	6주	10/23	국내 무슬림 선교
	7주	10/30	이주민 선교사역의 5단계
진행과 성취	8주	11/6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9주	11/13	유학생 선교
	10주	11/20	이주근로자 선교
	11주	11/27	이주민 가정 및 2세 선교
	12주	12/4	탈북민선교
	13주	12/11	이주민에게 듣는다.
	14주	12/18	연구발표 및 수료식

MMTS 25기
신청



문의 :

최헌주 선교사 : 010-4688-3816 | 하소미선교사 : 010-3335-2449